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해제, 임란의병장 매헌공梅軒公



권오신 칼럼니스트, 대중화 문헌편찬위원장

1592년 4월 13일 36살 때 임란을 맞은 매헌공(梅軒公, 휘諱 사민士敏)은 책을 읽고 제자들과 함께 칼을 잡고 일 어섰다. 국난을 맞았던 당시 조중봉(趙重峯, 1544~1592 문과급제 선무원종공신)을 비롯한 위인 의사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국가가 안정이 되었을 땐 임하(林下)로 돌아

가서 공훈녹봉(功勳祿俸)엔 일호(一毫)의 뜻이 없이 선비

의 본분만을 지켰다. 망우당(忘憂堂) 객재우(郭再祐)가 그렇고 매헌공이 그랬다.

매헌공은 6~7세 때부터 천자(天資)가 뛰어났다. 청년이 되어 서는 안강현(安康縣) 초감(草甘) 서당(書堂)에서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가르치고 천문(天文)과 지리(地理) 탐구로 난(亂)이 일 어날 것을 예측했다.

왜군(倭軍)이 경주성(慶州城)을 무혈점령하고 문경 세재를 넘 을즈음 공(公)의 초감(草甘) 산곡(山谷)엔 경주 국강 자인 언양 등 칠군유생(七郡儒生) 1천여 명이 일대의진(一大義陳)을 이루어 서 곡(書裁, 학생들의 양식)이 바다나 팔공산 악안 진으로 가가끼지 代를 이어야 할 외아들이나 노부모를 봉양할 제자는 집으로 돌려 보내고 2백여 명으로 줄이기까지 스승으로서 참담한 고통을 겪었 다. 이같은 의병세는 근동(近洞)의 의병진들이 노비나 문도 20~50 여 명씩으로 꾸려 집과 陳을 오갔던 의병 활동과는 대조가 됐다.

매헌공의 의병진(義兵陳)은 화왕산(火旺山) 객망우당(郭忘憂堂) 군진으로 옮겨 기공이적(奇功異蹟, 남달리 작전승리)으로 도체찰사(都體察使) 서에(西厓) 유성룡(柳成龍)으로부터 격려 수서(手書, 손으로 직접 쓴 서찰)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정유재란 (丁酉再亂)을 앞두고 모상(母喪, 숙인淑人 하양하씨河陽許氏)을 입어 진을 떠나기까지 7년간 의병 진을 지켰다.

객망우당(郭忘憂堂)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실기 객망우당문 집(郭忘憂堂文集)에 권사민(權士敏)은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산 립에 묻혀버렸기에 조정 녹훈(錄勳)에도 빠지고 세상에도 알려 지지 못하였다(先生與權士敏 絕不獻誠要功)고 기록했다.

이로부터 200년이 지난 정조 6년(1782)에야 공의 칠대손 모 암공(慕庵公, 휘諱 학인學仁, 1744~1784)이 조선(祖先)의 사적 을 밝히기 위해 10여 차례가 넘게 유소를 올리고 직접 언양에 올 라가 정조의 어가행렬을 격쟁(擊鉦)으로 가로막고 상소함으로 써 “당상관(堂上官) 좌승지(左承旨)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이르는 증직을 받아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정조 8년(1784) 효행(孝行)에 대한 정려 (旌閭)까지 받아내 충효양전(忠孝兩殿)이란 거대한 사적이 세상에 전해지게 됐다. 이렇듯 충효양전(忠孝兩殿) 사적이 조선후기에 밝혀지자 국인상하(國人上下)가 함께 감동했다.

지난 호에 게재했던 것처럼 판서(判書) 서유영(徐有英, 1801~1874)과 참판(參判) 김이주(金頤柱), 대사간(大司諫) 조성진(趙城鎭), 정언(正言) 조항진(趙恒鎭), 검교 김조순(金祖淳, 1765~1832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국 구國舅) 등 조선을 이끌었던 명관거유(名官巨儒), 명인석학(名人碩學)들이 지은 글이 후인들에게 전해지게 됐다.

정경가증正卿加贈과 시호諡號는 이루지 못했다.

의병 세력이 한때 1,000명에, 7년 동안 군진(軍陣)을 떠난 적 이 없었고 기공이적(奇功異蹟)의 승리로 의병들의 목숨은 물론 경산좌도 70고를 백성들의 생목숨을 구했다. 전후 선조 임금이 내린 언양현감에 나가지 않고 산림(山林)에서 풀옷에 숨어버린 매헌공의 사적이 200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후손 모암공(慕庵公)에 의해 알려져 정조 6년(1782) “당상관(堂上官) 좌승지(左承旨)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증직에다 정조 8년(1784) 효행(孝行)에 대한 정려(旌閭)까지 받아내 충효양전(忠孝兩殿)이 란 거대한 사적이 세상에 전해지게 됐다. 이렇듯 매헌공의 충효 양전(忠孝兩殿)에 조선후기에 밝혀지자 국인상하(國人上下)가 함께 감동했지만 경주사림(慶州士林)이 제자 요구한 정경(正卿)으로의 가증(加贈)과 시호(諡號)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매헌공 의 행의(行誼)와 충절효열(忠節孝烈)은 일향(一鄉, 경부부慶州府)의 존송(尊崇) 대상이었지만 조선후기로 옮겨간 사회 분위기 가 더는 뒷받침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헌공, 어머니 묘소에서 호랑이를 꾸짖다.

안타까운 비보가 진중(陣中)에 날아들었다. 선조 30년 왜장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가 14만을 이끌고 재침략한 정유재란 (1597년 8월)이 일어났던 그해(정유년丁酉年, 선조 30년) 8월 18일 어머니인 숙인(淑人, 정종삼품正從三品 당하관堂下官의 아내에게 내린 외명부외命婦 품계品階 하양하씨河陽許氏, 귀봉龜峯 휘諱 덕린德麟의 재배再配, 부父 휘諱 참봉參奉 정靖)의 부 음(訃音)을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시 쓰러져 순간이나마 정 신을 놓으셨다. 산성(山城)을 나가는 날, 지난 7년간을 함께한 2 백명 의병들과 통곡(痛哭)으로 이별하는 자리에서도 “왜적이 물 러날 때까지 분분(分番)하여 군계 성을 지키라.”는 말을 몇 번이 고 당부하셨다.

그날로 경주부 두동으로 돌아와 모상(母喪)을 치루고 3년간 묘소(여묘廬墓)를 지켰다. 경주부 율동 운문산(雲文山) 산자락 묘향(卯向, 이십사 방위의 하나로 정동 쪽을 중심으로 15도 안 에 들어오는 자리)에 묘소를 썼다. 상종 3년 시묘 때도 예에 넘치 게 슬퍼하셨다고 기록됐다. 산세가 길기로 유명한 운문산 산록 (경주 율리栗里)에서 여묘(廬墓)살이 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 나 으르렁 거리자 “너는 영물(靈物)인데 어찌 남의 어머니를 놀

라게 하느냐?”고 꾸짖으니 호랑이가 고개를 돌리고 가버린 일화 는 지금도 유명하다.(여강 이재희의 묘갈명에서 발췌) 이후부 터 밤이 되면 밤이 내려와 묘소를 지키다가 새벽이면 올라가니 호감(虎感)이라고 경주부에 전해졌다.

선조宣祖, 언양현감을 제수하다.

왜적이 물러나고 의주에 있었던 행궁이 다시 한양 도성으로 돌아와서 안정을 되찾은 선조는 임란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매헌(梅軒) 선조(先祖)를 경상좌도 언양현감(滄陽縣監)에 제수 하는 교지를 내렸다.

선조 임금이 내린 교지(敎旨)가 집에 도착했었지만 교지만 받 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매헌(梅軒) 선조는 언양현감(滄陽縣監)에 나갈 것을 권유하는 친척과 경주부의 사림(士林)에게 “창의(倡義)를 한 내 뜻은 벼슬을 얻는데 있지 않았다”는 짧은 이 한마디를 던지시고는 서당에 정좌하셨다고 전해진다.

칠읍七邑 훈도로 일생을 마치시다.

난리 후 경주부 두릉(杜陵)에 서실을 열었다. 난리로 불타버 린 책을 직접 베껴 후학들에게 읽게 했다. 대과(大科)와 소과(小科)에 오른 선비가 200여 명이었다. 9명이 어사화(御賜花, 임금 이 대과 급제자에게 내린 종이꽃)를 쓰고 스승을 찾아 왔었다고 기록됐다. 매헌공은 처음엔 안강현 초감(草甘)에서 경주부 중리(中里: 경주 황남동皇南洞 미추왕릉음昧鄒王陵 부근 마을)로 옮겨 서당을 열었으며 만년엔 두릉(杜陵)에 머물게 되었다. 일곱 고을 의 훈도(訓導)를 지내셨으며 의병장으로 활동한 7년을 빼고는 오직 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신 유학자(儒學者) 매헌공을 두고 육징불부(六徵不赴: 여섯 번의 부름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음)로 이름났다. 대학인 이승증(李承曾)은 “공의 도학(道學)과 학문 (學文) 세계는 당대의 사표(師表)이어서 영남 후학들이 자랑이 니 본받을 만하다.”고 그의 실기(實記)에 적었다.

매헌은 특히 주자학(朱子學)의 입문서인 근사록(近思錄, 송宋 대의 신유학)을 머리맡에 두고 틈만 나면 읽으셨다고 한다. 임진 왜란 이전 벼슬이 사옹원(司饔院) 주부(主簿)와 제용감(濟用監) 직장(直長)에 이르렀지만 전후 선조(宣祖) 임금이 내린 언양현 감(滄陽縣監) 인끈을 던지고 학문에 전념했던 조예(造詣)한 유 학자(儒學者)로 남았다.

자신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다. 아들과 손자에게도 영향을 끼 쳤다. 광해(光海) 5년(1613) 아들 생진공(生進公, 휘諱, 응림應立, 증광增廣 64인 중 3등 임직, 동경지東京詔)의 사마시(司馬試) 합격 축하 잔치에 참석하신 권태일(權泰一)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산림에서 성현의 글을 읽으시니 덕을 숨기고 사는 군 자라 이틀만 합니다”고 공의 학문을 격찬하셨다.

생진(生進, 생원고 진사 양시의 합격자) 이셨던 아들(應立)의 대과(大科)응시를 앞두고 “내가 늙은 아비와 더불어 성현의 글 을 읽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또 무엇을 바라느냐”고 하시면서 만 이고 세계 손자이신 소년 생원(生員) 휘諱 갈(桔)(식植, 성격의 동생, 요절)의 대과(大科)까지 말대셨다. 요절(夭折)한 소년 진 사(進士)는 경주부 율리 조모(祖母, 숙부인 하양하씨河陽許氏) 산소 하(下)에 써진 묘소만 남아 있을 뿐 더는 기록이 없다.

종가(宗家)의 현감공(縣監公, 노헌魯軒 휘諱 권응생權應生)이 어릴 적부터 매헌(梅軒) 선조(先祖)에게 글을 배울 때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식(생진공生進公 휘諱 응림應立)에게 먼저 매질 을 해서 깨우치게 했다. 천문(天文) 지리(地理) 복서(卜筮) 성률 (聲律) 전진(戰陣)에 대한 글을 깨우칠 때까지 여러 수련 방법을 써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매헌공의 가계

호는 매헌(梅軒, 자(字)는 수언(粹彦)이다. 안강현(安康縣)에서 병조, 예조정랑과 진주경주병마절제사(晉州慶州兵馬節制使), 하동 현감, 함천 영전 군수를 지내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과 숙인(淑人, 정종삼품正從三品 당하관堂下官의 아내)에 게 내린 외명부외命婦 품계品階 하양하씨河陽許氏, 귀봉龜峯 휘諱 덕린德麟의 재배再配, 부父 휘諱 참봉參奉 정靖) 사이에서 1557년 정월 20일(명종明宗 12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첨정공(僉正公)이 조부(祖父), 봉직랑공(奉直郎公)이 증조부, 사직공(司直公)이 고조부, 단종(端宗)사화로 배소였던 경상도 연일(延日) 대장산(大岑山)에서 생애를 마친 사정공(司正公)이 5대조이다. 고려말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 조선 태종이 내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과 함경도관찰사직리를 거절 한 송고공(松山公, 휘諱 조헌)이 7대조, 좌의정 문정공(文靖公)이 8대조,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휘諱 용일용一)이 9대 조일 만큼 문과급제와 절의 정신이 빛났던 선조를 두셨다.

매헌공은 6, 7세에 문리(文理)를 트고 윤율(韻律)의 고저를 깨 달았다. 심유 칠 세에 경사(經史,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사기史記)를 관통하셨다. 시(詩)를 배우면서 절로 시문(詩文)을 깨닫는 것 을 보신 부친(父親,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린德麟)이 “이런 인제 가 늦게 태어나니 나의 선생(尙재梅齊 이언적李彦迪)의 가르침 을 받지 못하는구나”고 크게 한탄하셨다고 한다.

논어를 수학할 땐 스스로 토를 달고 읽는 천재성을 보였으며 잠시도 책을 놓지 않았다. 머리맡엔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써놓 고 지낼 만큼 소년기부터 효손(孝孫)으로 경주 향에 이름을 냈 다. 일찍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하는 등 향시(鄉試)에 10회, 초시(初試) 복시(覆試, 회시會試)에 4회 합격하 셨다. 이런 학행(學行)으로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와 경주부윤 (慶州府尹)이 칠읍(七邑) 훈도로 추천했다.

임란 이전엔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와 제용감직장(濟用監直長)을 지내셨다.

한 시대를 덮었던 학문과 벼슬자리(언양현감)를 내 던지시고 백성들의 안위, 나라 걱정만 하신 사적은 시대는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이같은 사적(事跡)은 먼 훗날에 가서야 제자리를 찾게 됐다.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堂上官) 승정원(承政院) 좌 승지(左承旨)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증직으로 뒷받침됐다. 인조(仁祖) 12년(1634년) 4월 12일 경주부 두릉(杜陵)에서 78 살에 생의 끈을 놓으셨다. 왜적과 전투를 벌였던 남산 산록(경주 부남 노곡) 간좌(艮坐, 정동과 정북사이 방위를 중심으로 15도 각도 안에 써짐)에 묘소를 썼다. 문인(門人) 가운데 3년 동안 심 상(心喪)을 한 사람이 7.8명이나 됐다.

매헌 선조의 행장(行狀)은 학문적으로 가장 추앙을 받았던 대 제학 황경원(黃景源)이 짓고 묘지는 좌랑(佐郎) 남경의(南景義)가, 비문(碑文)은 판동녕(判敦寧) 이민보(李敏輔)가 지었다.

정려(旌閭)의 기문(記文)은 이계(耳溪) 홍양호 (洪良浩, 1724~1802 이조 공조 예조판서, 대제학,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짓고 우의정 이휘지(李徽之)가 썼다. 좌승지 심기태, 이조참의 (吏曹參議) 조정진(趙鼎鎭), 규장각 제학(提學) 오재순(吳載純, 예 조참판 남현소(南玄老), 우참찬(右參贊) 홍문관(弘文館) 조정화 (趙庭和), 한성서윤 정지덕이 정려기(旌閭記)를 추가로 지었다.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쓴 정려기를 간추려 보면 “공은 팔공산(八空山) 근거지에서 객재우 군진으로 이동, 화왕산성에서 왜적을 깨뜨려 영남 10여 고을을 온전하게 지켰다. 의병을 일 으켜 난세를 구하고 벼슬을 받았으나 이에 연연하지 않고 효행 이 우뚝한 것을 보니 임금이 특별히 정려를 명하였다. 무릇 사람 의 큰 절의는 충효보다 더 숭상할 것이 없고 오직 효성으로 정려 를 받았으니 우리 위대하고 성대하다.”고 적었다.

옥연서당(玉淵書堂) 상량문은 여강인 이해상 대부가, 강당기(講堂記)는 경주부윤(慶州府尹) 이원조(李源祹)가 썼다. 묘갈석 (墓誌石)은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부총관(副總管) 조정윤(趙鼎允)이, 묘지명(墓誌銘)은 남경의가, 묘갈명(墓鎬銘)은 역시 여 강인 이재희(李在喜)가 썼다. 행장(行狀)은 공의 의병사나 학문 적 세계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중요성이 질실함에 따라 당시 간간하기로 이름난 규장각 제학(提學) 황경원(黃景源)과 형조참 판(刑曹參判) 김이성(金履成)이 썼다.

경주읍지에도 인진왜란 때 200여 명으로 창의, 팔공산(八空山)에서 진을 치고 술하게 왜구의 목을 베었으며 가산을 털어 군량 미를 충당하였고 홍의장군(紅衣將軍)부대와 합세, 멀리 언양 인 근 화왕산성(火旺山城)까지 이동해서 큰 공군(軍功)을 세웠다.

모상(母喪)을 입어 향리로 돌아와 3년 시묘(侍墓)살이를 했었 다고 기록했다.

배위(配位)인신 숙부인(淑夫人, 정삼품正三品 당상관 부인에 게 내린 품계) 월성이씨(月城李氏, 부父 휘諱 승민承閑 참봉參奉) 사이에서 생진공(生進公, 휘諱 응림應立)과 세 손자(휘諱 식植, 격려, 갈桔)를 뒀다. 숙부인은 명종 14년(1559)에 나서 매헌 선조가 서세(逝世)한 5년 후 인조 17년(1639) 5월 12일 81세에 돌아가셨다. 경주시 내남면內南面 명계리梅溪里 시어時於 기슭 에 묘소를 썼다. 묘향은 신향(辛向, 이십사방위의 하나, 서西에서 북북쪽 유酉향과 술戊방 사이)

위국창의수성효충爲國倡義守城孝忠

매헌실기(梅軒實記)엔 당시의 사대부와 문장이 문신들이 보 낸 글은 4권의 실기에 수록되었다. 매헌공의 사적기는 지중추부 사(知中樞府事) 권상일(權相一)과 유의전(조선후기의 문신), 이 급(조선후기의 문신), 김양근(金養根, 1734~1799, 형조참의刑曹參議), 권보, 이경환 등 임진왜란 이후를 빛내었던 문신들이 시 (詩)와 무(賦, 논급 감상을 그대로 적는 한시漢詩)를 남김으로 자 랑으로 삼았다.

공의 7대손 학인(學仁)이 격쟁(擊鉦)으로 정조에게 올린 실록 (實錄)으로 인해 사적(史蹟)이 더 크게 빛나게 되었으니 선조(先祖)도 후손들도 모두가 영에(榮譽)로울 뿐이다. 사후 148년이 되 면 해 정조(正祖, 6년 1782)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옹원주 부(司饔院主簿) 권사민(權士敏)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 겸배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추증했다. 정조 8 년(1784) “위국창의수성효충爲國倡義守城孝忠” 첨지(교지)와 충효정려(忠孝旌閭)가 내려졌다.

정조 12년(1788) 후학을 가르쳤던 자리에 옥연사(玉淵祠, 옥 연서원玉淵書院)가 창건, 제향(祭享) 됐다.(자료출처: 옥연서사 권영휴權永休 선대가 지은 강당 상량문> 그즈음 매헌실기(梅軒實記) 건곤(乾坤)이 발간됐다. 문중에 보관되었던 교지(敎旨)와 서지(書誌)는 후학들의 학술연구를 위해 2012년 11월 19일(유 사이 공 권장래權昌勳) 안동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시켰다.

정조 8년에 내린 효충정려비(孝忠旌閭碑)와 비각은 정조 12년 (1788) 후학을 가르치고 그 후 종택이 된 경주시 내남면 두동리에 세워졌다.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학인(學仁), 징형(稱衡) 선 조를 기리는 모암재(慕庵齋)와 송모재(崇慕齋)가 세워졌다.

해설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자처(自處)하지 않음은 객망우당 (忘憂堂 郭再祐)과 같고 남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조중봉 (崇峰 趙惠: 1544~1592: 옥전에서 임란이 일어났던 4월 하순, 조선 에서 맨 먼저 거병,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 학자)과 같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충원 박제광의 서문에서 발 켜> 경주 일대에서선 창의가 가장 빨랐음을 증명해주는 기록이다.

1989년에 편찬(纂纂)된 경주군사(慶州郡史: 361쪽)엔 옥연사 (玉淵祠)가 정조 11년(1787)에 창건되었으며 권사민은 선무원종 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고 기록했다. 또 같은 해 편찬된 경주향고지(慶州鄕校誌: 63쪽)엔 옥연사(玉淵祠)가 정조 12년에 창건되었다(마조 권공재(權恭齋)이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된 것으로 경주군사와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런 배경엔 매헌(梅軒) 선조(先祖)의 한 시대를 덮을 공의 학 문적 사상(思想)이나 충효정신(忠孝), 반상을 가리지 않았던 애 민정신이 짙게 깔려 2백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민중의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맺는 글

매헌 선조는 무려 14차례나 회시(會試) 복시(覆試, 초시에 이 어 두 번째로 보는 시험)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 등에 입격 (入格)하셨지만 어사화(御賜花)는 쓰지 못하셨다. 아들 손자에 게도 생원(生員) 진사(進士) 이상 과거를 딸리는 등 과거에 연 연하지 않았던 본인의 성공도 원인이었지만 사숙(私淑, 가르침

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학문이나 인격을 본받음)이신 회재(晦齋) 선생(先生)과 부친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린德麟)이 회재(晦齋)의 문도로 불리는 등 그 시대를 흔들었던 여러 사 화(史禍)와 무관치 않다.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자처(自處)하지 않음은 객망우당(忘憂堂 郭再祐)과 같고 남보다 먼저 의병을 일 으킨 것은 조중봉(崇峰 趙惠: 1544~1592: 옥전에서 임란이 일 어났던 4월 하순, 조선에서 맨 먼저 거병,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 중기의 문신)과 같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충원 박제광의 서문에서 발췌>

한 시대를 덮을 학문(學文) 사상(思想), 충효(忠孝), 반상을 가 리지 않았던 애민(愛民) 정신이 짙게 깔려 2백 년이란 세월에서 도 민중(民衆)의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그의 시(詩)가 5백 년 후 세대들에게도 읽히는 이유는 시문(詩文)이 독특하고 가슴을 떨리게 한 문장력(文章力)이었으며 7세 손 학인(學仁)이 격쟁(擊鉦)으로 정조에게 올린 유사(有事)로 인 해 사적(史蹟)이 더 빛나게 되었으니 모두가 영예롭다.

경주시립도서관에 보관된 130쪽 분량의 필사본 “매헌선생충 효표창시향도장초梅軒先生忠孝表彰時鄉道狀草(영남사람들의 유소儒疏를 모은 목판본, 당시로서는 재야세력을 대표하는 사 립집단의 상소, 지금의 언련)에 따르면 임란 발생 50일 후중인 6 월 매헌공이 안강현 모전산(茅田山, 띠같이 얹힌 바위산)에서 첫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전투 시기가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난 사례이자 첫 전투 기록이다(乃於壬辰六月戰于茅田山下 剿滅賊陣 歸戰于兄江之北, 月城之南 毛良之東 諸將聞之稻舞相慶日 吾囑無患矣)

안강현 모전산(茅田山, 지금의 경주시 강동 학도병 충훈탑 인 근 산)의 첫 전투에서 왜병을 초멸(剿滅, 적이 가는 길을 끊었음) 시켰으며 돌아오는 길에도 형강(兄江)의 북쪽 및 월성(月城)의 남, 모량(毛良)의 동편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어서 북상 발길을 끊게 했다. 경주부윤도 죽장에 숨어버렸지만 빠른 창의(倡義)로 의기(義氣)가 풀어진 모신 모시 적삼처럼 빛나 의병장으로서 이름을 얻었던 써서이었다.

후손으로서 무척 아쉽고 한스러운 일은 그다음 왕조에서라도 바로 행장(行狀)을 정리, 사적이 편찬 시기를 당겼다면 당사관을 넣어 君. 공의 시호(諡號)를 받을 수 있었다. 선조(宣祖) 광해(光海)가 의병장들에게 쉽게 내렸던 선무원종공신이 9,060명이었 다. 매헌 선조는 군(君). 공(公)에다 쌍학홍배(雙鶴胸背)에 공수(拱手)의 모습을 한 세로 200cm, 가로 104cm 기호의 영정까지 하사받을 수 있었지만 불념(不佞)한 후손들이 기호를 놓쳤다.

철종(哲宗) 즉위년인 1849년에 창건된 옥연사(玉淵祠)는 고 종 5년(1868) 대원군의 금령(禁令)에 의해 훼손(毀撤)되었다가 옥연서당(玉淵書堂)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옥연서당(玉淵書堂) 뒤편엔 위패 무덤이 있다. 그때까지 위패를 두고 초하루 보름 분 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 때부터 고종 5년 월척될 때 까지 분향서원(焚香書院)이었을 것 같다.

경주부윤 이원조가 지은 옥연서당기玉淵祠講堂記

내가 부임한 월성의 남쪽 옥천동(玉川洞)에 매헌(梅軒) 권사민 (權士敏,1557~1634) 선생을 모신 옥연사(玉淵祠)가 있는데, 앞 서 조정에서 충효(忠孝)를 표창하여 정려(旌閭)를 내렸다. 사당 과 정려문 거리는 겨우 100보 정도로, 사당은 마침 내가 경주부윤 으로 부임하는 초에 이뤄졌는데, 유림들과 관에서 도왔고, 예를 드리는 희생(犧牲)과 폐백(幣帛)은 법식이 있었다. 또 본손(本孫)의 요청으로 사당의 강당기(講堂記)를 적는다. 옛날에 학교를 세 워 [상숙庠塾] 가르치고 배우는 일 가운데 그 지역의 선배를 향사 지내는 것으로 모범을 삼지만, 한갓 은덕에 대해 보답하는 곳만 은 아니다. 매헌공의 충과 효의 진실함에 이미 정려문을 세우고 제사까지 지냈으니,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연유를 안 후에야 선생을 우러러볼 수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아! 왜적이 침입해 물러가지 않자 단신의 몸으로 그들을 몰아 내고, 야수(野獸) 호랑이보다 사납지는 않지만 한마디의 말로 그 들을 막고 굴복하게 하였으니, 지극한 정성의 능함이 아니겠는 가? 듣기에 공의 부친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1529~1573)공 께서 회재 이언적 선생의 문인 가운데 뛰어난 제자로 칭송받았 고, 가학을 이어받아 신하가 되어서는 적에 대한 분노의 의로움 을 떨치었고, 자식이 되어서는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정 성을 다하였으니, 모두가 학문의 공력이다.

훗날 이곳 강당에 오르고 사당에 배알하는 자가 있다면 한갓 되이 얻드려 제사지내는 일로 선생에 대한 보답이 충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독서하여 이치에 밝아져 자식들이 선생 의 가학을 거슬러 오르고, 문원공 회재선생의 가르침을 표명하 였으니, 동도(東都)의 이름난 고을에 장차 반드시 선대의 업을 이어받아 일으키는 자 가운데 충효를 배우고 요구한다면 누군 가는 거의 사문(斯文·유학)에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경주부윤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祹 1792~1871)는 경주부 남 쪽 옥연사를 찾아 문인으로서 존경심을 표하며 ‘옥연사강당기(玉淵祠講堂記)’를 지었다. 성주 출신 응와 선생은 1809년(순조 9) 별시문과에 급제, 정언(正言)·대사간(大司諫)·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했다. 1849~1850년까지 경주부를 다스렸다. 비록 짧은 임기였지만 경주부의 많은 유림들과 돈독한 유대를 쌓았고, 영남 남인으로 회재 선생을 흠모하였다. 당시 노론이 집권하면 서 남인의 입지가 그리 좋지 못한 형편이라서 이후 성주로 낙향, 1851년에 만귀정(晩歸亭)을 짓고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았다.>

<資料出處: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崔孝軾著 慶州府의 壬辰抗 爭史, 金甲周著 朝鮮後期 慶州地域의 士林活動-壬亂義兵將 權 士敏의 褒贈問題를 中心으로, 李壽洛國譯 梅軒實紀, 永嘉言行 錄, 慶州儒敎文化遺蹟, 東京誌 安東權氏佐尹公派司正公世譜>

필자의 글 (지난 6개월간 임진왜란과 관련된 자료를 밤낮으 로 살피고 이 글을 썼다. 임란 7년을 관통했었던 선인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특히 필자의 11대조 매헌 선조께서 책 대 신 칼을 들고 창, 전란 7년간 군진을 떠나지 않았던 정신과 나 라가 안정된 후엔 선조(宣祖)가 내린 언양현감에 나가지 않고 풀옷을 걸친 유사(遺事)를 보고 글을 쓰는 6개월 내내 읍혈(泣血)의 마음이었다. 1.월호에서 해제까지 6개월간의 연재를 게재 한 대중화 중보 편집국에도 감사사를 드린다.)